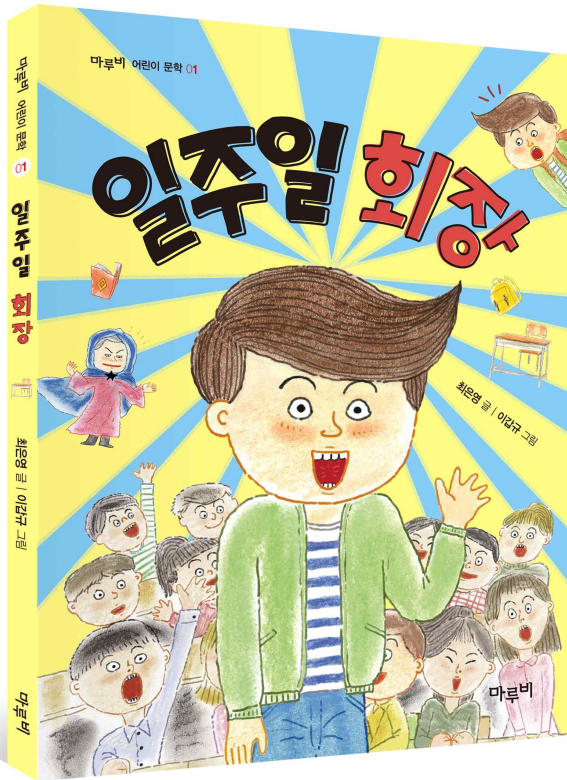


| 독서 지도안 |

# 일주일 회장

최은영 글, 이갑규 그림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 시우는 설렘과 흥분으로 학교로 향한다. 바로 4학년 1반의 첫 회장이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우의 담임선생님은 회장과 부회장을 뽑지 않고 매주 월요일 아침, 뒷문 바로 앞자리에 가장 먼저 앉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회장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장에게는 일주일 동안 반 친구들이 모두 따라야 하는 규칙 한 가지를 정할 수 있는 특권도 주었다.

일주일 회장 자리를 놓고 욕심각신 다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대장노릇을 위한 회장이 아니라 멋진 리더로서 자신의 신념을 펼쳐 보이고자 하는 두 주인공을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과 수용, 배려라는 공감 능력을 일깨워 어린이 독자에게 흥미와 교훈을 다함께 선사하는 창작 동화이다.

## <관련 교과>

- 국어** (3-1) 6. 일이 일어난 까닭 8. 의견이 있어요 (3-2) 1. 작품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4-1) 6. 회의를 해요. 8. 이런 제안 어때요 (4-2) 8. 생각을 하며 읽어요  
(5-1) 1. 대화와 공감 2. 토의하여 해결해요.  
(5-2)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6.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6-1) 4.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 사회** (4-1) 지역문제와 주민참여 (5-1) 인권을 존중하는 삶  
(6-1)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6-2) 인권을 존중하는 삶

- 도덕** (3) 1. 나와 너, 우리 함께 (5) 5.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6) 4. 공정한 생활

**주제어** #리더 #지도력 #배려 #공감 #우정 #토의 #참여 #평등

◆ 읽기 전에 생각해 봐요

1. 다음 제목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보세요.

★ 일주일

---

---

★ 회장

---

---

2. 표지 그림을 보고 이 책의 제목 ‘일주일 회장’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적어 보세요.



◆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1. 4학년 1반에서 일주일 회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2. 시우는 일주일 회장이 되면 반 친구들 모두가 원하는 규칙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이 된 시우가 정한 규칙은 무엇인가요?

-----

-----

3. 시우가 그 규칙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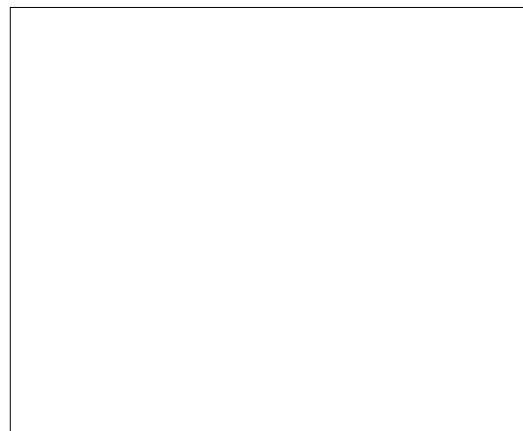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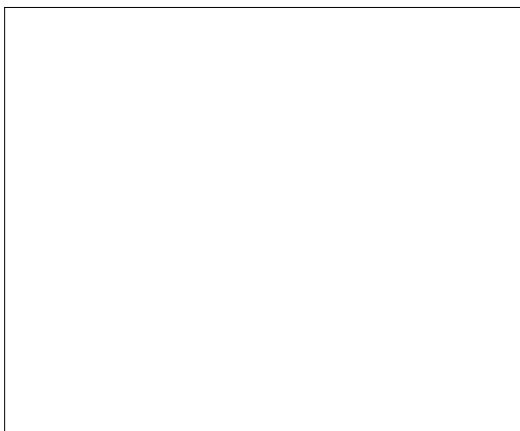
-----

-----

4. 시우의 할아버지와 주엽이 할머니가 서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적어 보세요.

★시우의 할아버지 의견

★주엽이 할머니 의견



5. 시우가 할아버지를 따라 방법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

-----

6. 시우가 정한 보드게임에 대해 아이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선생님이 규칙이라며 아이들을 달랠니다. 이때 주엽이가 선생님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

-----

-----

7. 4학년 1반의 2대 회장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2대 회장이 정한 규칙은 무엇인가요?

★ 2대 회장

-----

★ 2대 회장이 정한 규칙

-----

8. 회장을 놓친 시우에게 할아버지가 제시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

-----

9. 시우는 무엇 때문에 회장을 하고 싶었나요?

-----

-----

◆ 서로 생각을 나누어 봐요

1. 시우와 주엽이의 성격에 대해 적어 봅시다.

★ 시우의 성격

---

---

---

---

★ 주엽이의 성격

---

---

---

---

2. 시우 할아버지와 주엽이 할머니의 행동에 대해 나의 의견을 글로 적어 봅시다.

★시우 할아버지

---

---

★주엽이 할머니

---

---

3. 시우와 주엽이 중 누가 더 회장의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글로 적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

---

---

4. 내가 생각하는 회장의 역할에 대해 적어 보세요. 그리고 만일 학급에 회장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

---

#### ◆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봐요

시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 봅시다.

## ◆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만일 회장이라면 우리 반을 위해 어떤 규칙을 정할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글로 적어 보세요. 그리고 실천 방법도 적어 보세요.

★ 내가 만일 회장이라면 정하고 싶은 규칙

★ 이유

★ 실천 방법

◆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시우는 제비뽑기로 회방을 정하자는 규칙을 제안하여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마다 제비뽑기로 회장이 바뀌는 4학년 1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해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

-----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친구에게 편지글로 써봅시다.

-----

-----

-----

-----

-----

-----

-----

-----

-----

-----

-----

-----

-----

-----

<읽을거리>

## 아테네의 제비뽑기

민주주의의 발원지로 꼽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대표자를 뽑았을까요? 정답은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기원전 4~5세기 아테네에서는 민회와 500인 평의회, 민중 법원, 행정직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모두 자원자로 꾸려졌습니다. 민회에 모인 사람들 중 제비뽑기로 선발해 500인 평의회를 구성했는데 이들이 법안을 작성하고 행정직을 관리하고 외교 업무도 수행했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해당하는 민중 법원도 시민들 중 제비뽑기로 6,000명을 뽑아 구성했는데 이들은 그날그날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행정직은 시민들 중 역시 제비뽑기로 뽑힌 약 600명의 공무원과 민회에서 뽑은 100명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공무원들처럼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행정직 중 군사 분야와 재정 분야만 적합한 전문가 후보를 두고 선거를 해서 뽑았습니다. 누구라도 다음 제비뽑기를 통해 공무원이나 대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쟁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로 선출된 자들의 임기는 1년이었고, 한번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재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모든 수준에서 자리를 내어주고 물려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최대한 많은 수의 시민들을 나라 살림살이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후에도 제비뽑기는 금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1268년~1797년), 피렌체(1328년~1715년)에서도 방식과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주요 공직자를 뽑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활용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선 최고 귀족 가문들의 치열한 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나무 공을 뽑아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합니다. 귀족 가문들이 모여 나무 공에서 어느 가문의 이름이 나오느냐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재밌습니다.

한편, 제비뽑기를 했던 아테네 시민의 수는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6만 명 정도였다니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으면 뜻을 모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제비뽑기를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캐나다와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입니다. 물론 정치 실험이긴 했지만 이 나라들은 2000년 이후 각 주에서 제비뽑기로 주민 대표를 뽑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여론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규모였고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 나라들이 고대 국가에서 하던 제비뽑기를 떠올렸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